

‘협치’ 20대 국회 첫 대정부 질문서 파행

김동철 ‘대통령 영남편중 인사’ 국무총리 추궁에 새누리 의원들 문제 제기하며 소동 ... 한때 정회

‘협치’를 모토로 출발한 제20대 국회의 첫 대정부 질문이 파행으로 얼룩졌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어 비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을 진행했으나 여야 의원들이 고성과 막말을 주고받으며 충돌, 결국 개의 1시간 40여분 만에 정회됐다.

이날 오전 세 번째 질의자로 나선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이 ‘대통령의 영남 편중 인사’를 주장하며 황교안 국무총리를 추궁하자 본회의장 의석에 있던 새누리당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소동이 시작됐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질의를 방해하자 김 의원은 새누리당 이은재 의원을 호명하며 “질문하는 데 간섭하지 말란 말이야”, “말하고 싶으면 나와서 하란 말이야”라고 호통쳤다.

언쟁은 일단락되는 듯했으나 질문을 이어가던 중 또다시 새누리당 의원들이 웅성거리자 김 의원은 “총리의 부하직원이나,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 의원은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을 지목하며 “동료의원이 대정부 질문하는 데 가만히 있어라”, “어떻게 대전시민은 이런 사람을 국회의원이라고 뽑아놨나”, “제발 대전은 그런 사람 뽑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또 “이렇게 저질 국회의원과 같이 국회의원을 한다는 게 창피해 죽겠다”며 이장우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이장우 의원도 좌석에 앉은 채 “더 이상 못 들겠다. 사과부터 하세요”라고 사대질을 하며 맞받아쳤다. 새누리당 의원들도 김 의원에게 “지역구 주민을 욕되게 하는 발언을 하면 안 된다”, “인신모독이다”며 사과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결국, 박 부의장은 정회를 선포하고 3당 원내대표에게 상황 정리를 요청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곧바로 회동에 김 의원의 유감 표명을 조건으로 대정부 질문을 계속하기로 합의, 오후 들어 정회 약 3시간 만에 대정부 질문이 속개됐다.

김동철 의원은 남은 질문을 다시 시작하면서 대정부 질문 파행과 관련해 유감의 뜻을 밝혔지만, 이장우 의원은 김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며 국회 윤리위 제소 의사를 밝혔다. 앞서 첫 질문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박병계 의원은 자신의 질문 내용에 이의를 제기한 새누리당 의원들을 향해 “이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비난했고, 이에 대해 새누리당 의원들이 큰 소리로 사과를 요구하면서 소동이 일었다.

한편, 20대 국회 첫 임시회인 6월 임시국회는 이날 대정부 질문 종료와 함께 사실상 막을 내렸다.

폐회일인 6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7개

비상설특별위원회 구성안과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계획서만 의결한다. 7월 임시국회는 원내 1·2당인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굳이 억지로 소집할 필요가 없다”며 반대하고 있어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은 7월 임시국회를 개최하자고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임시국회 대신 삼일위법로 결산 심사만 하면 된다는 방침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여야 합의로 오는 12~21일 예정돼 있다.

7월 임시국회는 원내 1·2당인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굳이 억지로 소집할 필요가 없다”며 반대하고 있어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은 7월 임시국회를 개최하자고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임시국회 대신 삼일위법로 결산 심사만 하면 된다는 방침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여야 합의로 오는 12~21일 예정돼 있다.



“좀 참으시죠”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을 진정시키고 있다. 이날 김동철 의원의 대정부 질문 때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이 김동철 의원의 질문을 방해하는 발언을 하자 김동철 의원이 이에 반발하며 고성이 오갔다. /연합뉴스

서별관회의 공방 ... 野 “국정조사” 與 “예전부터 있었다”

우상호 “이혹 파헤쳐 재발방지” 정진석 “DJ 정부에서 시작”

여야는 5일 청와대 서별관회의 의혹을 둘러싸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하자 새누리당은 “터무니없다”며 적극 방어 태세에 나선 것이다.

서별관회의 의혹은 지난해 10월 당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결정했다는 내용으로 관치금융 논란을 불러일

으키고 있다. 현재 더민주는 전체 의원 명의로 서별관회의를 포함해 조선·해운산업의 부실 책임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에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서별관회의는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돼 역대 모든 정권에서 실시한 일종의 비공개 경제현안 점검 회의”라며 “특히,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매주 화요일에 정기적으로 하며, 중요 정책을 조율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통상 경제현안점검회의를 ‘보이지 않는 손’ 또는 ‘밀실 음모’로 주장하면서 청문회를 하

자고 하는 것이 국가경제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라고 반문했다.

박명재 사무총장은 자신이 참여정부 시절 서별관회의에 참석한 사실을 전하며 “밀실회의라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얘기다. 국가 주요대책을 논의한 자리인데, 그 당시 한 것은 옳은 회의였고 지금은 밀실 회의라는 지적은 전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서별관회의를 제대로 한번 파헤치고 조사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겠다는 보장이 있어야 더민주가 국민의 세금(대우조선해양에) 쓸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특히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이른바 서별관회의 자료가 공개됐다. 그동안 추측으로만 제기됐던 각종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는 순간”이라고 주장했다.

박광은 수석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알고도 국민세금을 지원하도록 결정한 서별관회의 참석자들, 분식회계를 주도한 대우조선 관계자들과 회계법인 모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정부가 대우조선의 분식회계 징후를 방임, 방조함으로써 부실 규모를 전문학적으로 키우는데 일조했다”면서 “그 중심은 서별관회의였다”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여야 중진, 남북관계 정상화 머리 맞댄다

원혜영 주도 모임 발족 이해관계 떠나 초정파적 논의

여야의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남북관계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모임인 만큼 그 의미와 성격을 잘 살려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논의에 한 역할을 담당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병국 의원은 “북한에 강경노선을 해보기도 하고 대화 국면으로 온건노선을 취해보기도 했지만 북한은 변하지 않고 ‘마이웨이’ 하는 상황”이라며 “책임 있는 중진 의원들이 또 다른 돌파구를 찾을 수는 없는지 중지를 모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영길 의원은 “개성공단이 6월10일 폐쇄된 후 세월이 지나고 있는데 공단(임주업체) 사장들은 비가 와도 녹슨 기계에 기름칠도 못하고 있다”며 “정 의원의 말씀대로 제재 국면도 대화를 위한 수단 이므로 국면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원 의원은 인사말에서 “국회에서 책

임 있는 4선 이상 의원들이 정파를 초월해 남북관계를 조인하고 실천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모였다”며 “초정파적 모임인 만큼 그 의미와 성격을 잘 살려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논의에 한 역할을 담당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병국 의원은 “북한에 강경노선을 해보기도 하고 대화 국면으로 온건노선을 취해보기도 했지만 북한은 변하지 않고 ‘마이웨이’ 하는 상황”이라며 “책임 있는 중진 의원들이 또 다른 돌파구를 찾을 수는 없는지 중지를 모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영길 의원은 “개성공단이 6월10일 폐쇄된 후 세월이 지나고 있는데 공단(임주업체) 사장들은 비가 와도 녹슨 기계에 기름칠도 못하고 있다”며 “정 의원의 말씀대로 제재 국면도 대화를 위한 수단 이므로 국면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새누리 ‘8·9 전대’ 선대위 오늘 발족

비대위장 박관용 유력 투·개표 절차 등 쟁점

새누리당은 6일 ‘8·9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전대 준비에 착수할 것으로 5일 알려졌다.

한 당직자는 이날 “내일 혁신비상대책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선관위원장과 위원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혁신비대위는 위원장으로 박관용 전 국회의장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며, 선관위원은 원·내외 인사 11명으로 구성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는 합동연설회 형식과 횡수, 선거운동기간, 투·개표 절차 등 전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사항을 결정한다. 이 때문에 역대 전대에서 계파별, 주자별 특성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사안에 대한 선관위의 결정을 놓고 치열

한 힘겨루기가 벌어졌다. 이번에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 선출기로 하고, 여기에 추가로 ‘킷오프제’와 ‘모바일 투표’ 등을 처음 도입하자는 주장도 제기되는 만큼 어느 전당대회 때보다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전대를 앞두고 유력 당권주자와 계파 수장들의 움직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김무성 전 대표가 오는 14일 대표 표 취임 2주년을 맞아 당시 전대 캠프에 몸담았던 실무자와 지지자 등 수백 명이 참석하는 만찬 회동을 추진하자 전대대선을 겨냥한 행보 아니냐는 정치적 해석을 낳고 있다.

이와 함께 여전히 출마 여부에 대한 공개 입장을 나타내지 않고 있는 최경환 의원이나 전박계 추대설이 나오는 서정원 의원의 행보도 주목을 끌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새누리 광주시당 12일 시당위원장 선출

새누리당 광주시당은 오는 12일 차기 시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2016 정기 시당대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새누리당 광주시당위원장 선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새누리당 광주시당위원장 선출 방법은 경선으로 치러지게 되며, 후보자가 1인인 경우 시당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2인 이상 입후보할 경우 시당 대회를 열어 재적 대의원 과반수 투표를 통해 최다 득표자를 시당위원장으로 선출한다.

시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후보 등록을 공고한 후, 8일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선거운동 기간은 8일부터 5일간이다. 김대원 새누리당 광주시당 사무처장은 “새로운 시당위원장이 선출되면 4·13 총선 이후 변화한 지역 정치지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광주발전을 이끌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할 계획”이라며 “이번 시당 대회는 전당대회 앞서 치러지는 만큼 당원의 관심 속에서 당의 화합과 혁신을 이루는 축제의 장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

부동산 실무전문가 **박관식대표의** 특별세미나

부동산시장의 전망과 성공투자전략!

아파트시장과 토지시장의 전망!
부동산투자! 어떻게 해야 성공투자를 할 수 있을까?
서울 및 수도권, 지방 부동산시장의 전망과 분석!
수도권에서 가장 매력적인 투자지역은 어디일까?
땅에서 새로운 부자가 탄생한다
떠오르는 신개발지를 찾아라!

행복한 부동산 강의와 상담이 함께하는

[박관식 전문가의 방송 안내]

▶ **WOW 한국경제TV ‘부동산핫라인’ 생방송 출연중!!**
(매주 일요일 저녁7시(본방) / 밤12시(재방))

부지가 답이
PT-123456
부동산 = 666

무료 특강 일시 및 장소

광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7월 6일(수) / 오후 2시~5시 • 장소: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214호 (광주시 서구 치평동 1159-2)
서울 여의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7월 11일(월) / 오후 2시~5시 • 장소: 여의도역 동화빌딩 6층 한국경제TV 와우파 (여의도역 4번출구 직진 3분거리 삼성모바일서비스센터 건물 6층)

* 당일 혼잡할 수 있으니 사전접수 바랍니다

(KLD) 한국토지개발원 **부동산세미나 문의 : 02)595-4236, 4237**